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김 정 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A Study on Developing the Modern Fashion Design with the Application of Plasticity of Patchwork Wrapping Cloth

Jeong Mee Kim †

Major in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4. 11. 24. 접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e that traditional patchwork wrapping cloth can be a creative motive for modern fashion, and the application of it can be a way of expressing not only the pride in our cultural heritage but also the originality of fashion design. The analysis of the plasticity of 108 patchwork wrapping clothes has come up with the following findings: Firstly, the plane structure consists of 41 basic forms and 67 applied ones. Secondly, 61 contrast color harmony and 47 similarity color harmony. Thirdly, the fabric consists of 88 silk clothes, 19 ramie clothes, and 1 silk and ramie cloth. Fourthly, 47 unlined clothes and 61 lined ones. The study also expresses the analyzed plasticity of patchwork wrapping cloth for fashion with the following findings: Firstly, basic plane structures, contrast color harmony, silk cloth and the press flower coating technique become one piece dress to express splendid and elegant image. Secondly, application plane structures, similarity color harmony of natural dyeing method using persimmon, ramie cloth and the press flower coating and over lock technique become a jacket and a blouse to express calm and dynamic image. Thirdly, the needling and over lock technique used to patch clothes has become a desirable way to express fabric with unique surface effects. Fourthly, the press flower coating which modernizes embroidery in patchwork wrapping cloth has become a new technique which can create high values with its extended the visual effects of the material. Fifthly, Patchwork wrapping cloth in Chosun Dynasty has now become a motive for modern fashion design to express tradition and creation.

Key words: Tradition, Modernization, Patchwork wrapping cloth; 전통, 현대화, 조각보

I. 서 론

서구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 밑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근대화를 거쳤던 우리 사회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역사성과 지역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힘입어 우

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자성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최세완, 1992). 패션산업의 경우 80년대 후반이래 수입자유화라는 시장환경 속에서 디자이너들은 한국패션의 새로운 도전과 방향제시를 위해 한국적인 전통의 미를 살려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한국복식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디자인요소들을 현대패션에 적용하는 등 한국적 디자인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93년 봄부터 시작된 일부 디자이너들의 해외 콜렉션

†Corresponding author
E-mail: jmkim@pknu.ac.kr

진출은 한국적 미를 세계화시키려는 디자이너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외적으로 패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김찬주, 장인우, 1999). 이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의 자각과 세계화된 사회에서의 모방의 한계성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을 활용하여 서양디자인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재는 민족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독특한 조형성을 갖고 있으므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과정에서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고(급기숙, 1999), 인간과 가장 밀접한 환경에 있는 복식은 가식적이며 쉽게 변할 수 있다는 복식 자체의 속성 때문에 전통의 표현수단으로서 용이하게 이용되는 것이다(김민자, 1990). 그러므로 서구화된 현대복식에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표현하는 일은 전통의 현대화가 전통을 계승한다는 인식과 차별화된 한국복식디자인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의 소재로 조각보를 선택하였다. 조각보는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해서 만든 생활용품이지만, 세련된 면구성과 색상은 몬드리안(Pieter C. Mondrian)과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의 추상회화를 연상시킨다. 현대미술에서 표방하는 예술과 생활의 결합 추구, 무질서(disorder), 우연성(chance operation), 무작위(randomness) 등은 그대로 보자기에 적용되는데, 라우션버그(Robert Rauschenberg)는 이미지와 오브제의 끊임없는 연결을 특징 짓기 위해 임의적 질서(random order)란 용어를 사용하고, 제작과정 속의 우연성을 강조하였다. 소위 삶이라는 임의적 사건의 연속성 속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작품의 영역 속으로 포괄된다(이경자, 홍나영, 1996). 이러한 현대미술의 개념에서 조각보는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고,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의 활용이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복식디자인에 독창성을 표현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조각보의 면구성, 색상조화, 소재구성, 제작기법을 응용하여 전통성과 창조성을 표현하는 현대복식을 제작하는데 있다.

연구범위는 조선시대 보자기중 조선 후기 조각보로 제한한다. 보자기 유물 중에는 조선조 18대 현종의 딸인 명안공주(明安公主)의 길례(吉禮)에 사용된 것이 있으나, 남아있는 보자기의 대부분은 20세기 전

후의 것(국립민속박물관, 198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사천자수박물관, 무형문화재 한상수가 소장하고 있는 보자기 중 조선 후기 조각보 108점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자기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보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조각보의 형태, 소재, 장식, 제작기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수집한 108점 조각보의 면구성, 색상조화, 소재구성, 제작기법을 분석한다. 넷째, 이론적 기반과 보존 유물의 실증적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디자인을 개발하고 여성복 4벌을 제작한다.

II. 일반적 고찰

1. 보(褙)의 개념과 분류

보(褙)는 한자어로 보자기를 지칭한다. 보자기란 물건을 싸기도 하고 혹은 덮기도 하기 위하여 피륙으로 네모지게 만든 물건으로 끈을 달기도 하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다(한글학회, 1957). 보자기의 명칭은 표준말인 보자기 외에 복(褙), 보(褙), 보자(褙子), 복(褙) 등으로 불려졌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바뿌재, 밥부재(제), 보, 보대기, 보자, 보재기, 보재이, 보따리로, 경상남도에서는 밥수건, 보새기, 보새끼, 보재기, 보티이, 보따리로, 전라북도에서는 보, 보재기, 포대기, 포재기로, 전라남도에서는 보대기, 보재기, 보투이, 보따리로, 충청북도에서는 보재기, 보재기로, 충청남도에서는 보자, 보재기, 보재기로, 강원도에서는 보, 보자, 보재기로, 황해도와 함경도에서는 보대라고 한다. 특히 보자기 복(褙)자와 같은 음인 '褙'이 보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 점이 특이한데 이것은 보자기에 복을 싸 둔다는 민간 신앙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듯하다. 또한 보자기를 '보자의(褙子衣)'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물건을 싸두는 옷'에 비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허동화, 1997). 보자기가 처음에 옷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었음은 현존하는 최고의 보자기로 알려진 선암사의 탁자보가 탁의(卓衣)라고 불린다는 사실이 그 예라 하겠다(한상수, 1974). 또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싸는 보자기인 강보(襁褓)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옷과 다름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외에도 보자기는 분명 물건을 덮어 가리고 싸

서 보호하는 물건이되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하였으니 이런 의미에서 싸여지는 물건의 옷의 개념과 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진숙미, 1984). 따라서 보자기의 개념은 필요에 의해 사용했다는 실용적인 측면과 수를 놓거나 조각천을 이어 재구성하는 장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복락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보자기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허동화(1997)는 보자기를 사용계층, 구조, 문양의 유무, 용도, 색상, 문양종류, 재료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용계층에 따라서는 궁중에서 사용한 궁보와 민간에서 사용한 민보로 나눈다. 구조적 특징에 따라 안감을 대지 않은 홀보, 안감과 겹감 두 겹으로 된 겹보, 솜을 두고 안감을 덧댄 솜보, 직선이나 기하학적 패턴으로 누벼서 만든 누비보, 천조각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 바탕천에 식지(기름종이)를 대거나 식지만으로 만든 식지보 등으로 나눈다. 문양의 유무에 따라 크게 유문보(有紋襪)와 무문보(無紋襪)로 나뉘고, 유문보는 다시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수로 문양을 놓은 수보(壽襪), 문양을 두어 짠 천으로 만든 직문보, 천 바탕에 금박으로 문양을 찍은 금박보, 천 바탕에 당채 등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당채보 등이 있다. 용도별로 구분하면 상용보(常用襪), 혼례용보(婚禮用襪), 종교의식용보(宗教衣食用襪) 및 기타 특수용보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덮개보, 경대보, 밥상보 등 다양하다. 색상별로는 청홍보, 소색(素色)보, 황색보 등이 있고, 천의 문양종류에 따라 용문보, 화복문보, 문자문보 등으로 나누고, 재료별로는 명주보, 비단보, 면직보, 모시보 등이 있다. 또 폭 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싸두는 물건의 크기에 따라 1폭에서 9폭까지 있다.

2. 조각보(彫刻襪)의 일반적 특징

민보(民襪)의 대표적인 양식 중의 하나인 조각보는 의복을 짓고 남은 천 조각을 활용해서 만들었으며 폐품활용이라는 생활의 지혜의 한 소산이며 서민층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궁보(宮襪)에는 아직 발견된 예가 없다(허동화, 1986).

조각보는 크기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었는데, 1폭 이내의 조각보는 받침보, 덮개보, 노리개보 등으로 사용되었다. 2폭 내외의 조각보는 대부분 상보로 사용되었는데, 한 개의 상보로 유사한 크기의 상을 완전

히 덮기 위해서는 정방형에 가까운 사각보가 필요치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김성희, 1979). 3폭 이상의 조각보는 옷감보, 빨래보, 이불보 등으로 사용되었다. 수집한 108점의 조각보는 대부분 상보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비슷한 정방형이 90점, 한 쪽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이 18점이었다.

조각보에 주로 사용된 소재는 견직물(紗, 羅, 緞, 明細 등)과 모시 등으로 당시 의복의 소재와 일치한다. 현존하는 조각보의 직물에는 사(紗), 라(羅)류의 것이 많은데 이것들은 모두 기계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계직 직물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현존하는 조각보들의 대부분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에 거쳐 제작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허동화, 1988). 조각보는 사(紗)·라(羅)류의 얇은 견직물은 얇은 견직물끼리, 단(緞)·명주(明紬)류의 두꺼운 견직물은 두꺼운 견직물끼리, 모시는 모시끼리, 베는 베끼리 대부분 같은 종류의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각보는 박쥐무늬, 꼭지, 끈 등의 장식이 있다. 박쥐무늬 장식은 조각보에 갖가지 색깔의 작은 장식물을 곁들임으로써 미적인 배려와 안감과 겹감이 들뜨는 것을 막는 고정나사의 역할을 하는 실용성과 제액초복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다의적(多義的)인 장식물이다. 꼭지는 길게 자른 천의 가장자리를 바느질로 맞붙여 폭 1~2.5cm 정도 되게 겹으로 꾸민 천 테이프 로 상보에 달려있다(허동화, 1988). 끈은 조각보의 안쪽 네 모서리에 달려있어 물건을 쌀 때 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한쪽에 달린 끈은 한 개 혹은 두 개가 달려 있다. 끈은 중간부분이 분리되어져서 그것이 한바퀴 꼬아져 아랫부분은 한통으로 되어 있다(김성희, 1979).

조각보는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것으로서 패치워크 기법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김민자, 1990). 조각보를 제작하는 방법은 한복에 필요한 바느질법과 같은데, 홀보와 겹보에 따라 그 제작기법은 다르다.

III. 조각보의 조형적 특성

인간의 예술활동 중에서 시각적 입체 감각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선, 형태, 색, 재료 등의 조형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을 조형예술이라 한다(마릴린, 루이스, 1981/1988). 조각보는 기하학적인 선, 사각형의 형태, 다양한 색상, 조각천으로 구성된 조형예술로서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서로 이어 붙여 제작된 기법은 기하학적 문양구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색채들이 혼합되어 토속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금기숙, 1999). 그러므로 조각보의 조형미는 조각보에 나타난 선, 형, 색상, 소재 등의 조형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조각보는 의복을 제작하고 남은 천을 활용했기 때문에 조각에서 나올 수 있는 선과 형, 의복에 사용된 색상, 소재를 사용했다는 한계성이 있다. 하지만 단순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기하학적 면구성과 세련된 색상조화, 질감을 고려한 소재구성, 제작기법에서 조각보의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1. 면구성

조각보는 조각의 형과 조각들을 이었을 때 생기는 형태가 모두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의 조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기본형 구성과 응용형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표 1>로 제시하였다.

1) 기본형 구성

기본형 구성은 같은 크기의 형으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이 있다.

① 같은 크기의 삼각형이 두 개 혹은 네 개가 모여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반복으로 8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안정된 질서를 보이지만 각각의 삼각형에 색상 변화를 주거나, 같은 색상일지라도 도톰한 솔기부분의 색은 강조되므로 사각형보다 삼각형이 두드러져 보이며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사선은 색상의 배열과 동적인 리듬의 효과를 나타낸다(그림 1, 2).

②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20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정사각형의 배치에서 오는 단조로운 색상의 불규칙적인 배열과 같은 색상을 사선으로 배열함으로써 울동감을 나타낸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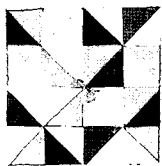
③ 길이 방향으로만 긴 직사각형의 반복으로 8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색상에 변화를 주어 줄문양을 이루는 단순한 구성은 현대적 감각을 표현한다(그림 4).

④ 같은 크기의 원형의 반복으로 5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같은 크기의 원형들이 네 군데의 같은 면적을 공유하면서 겹쳐져 입체감을 표현하고, 바탕색과 보색을 대비시킴으로써 공간감을 나타낸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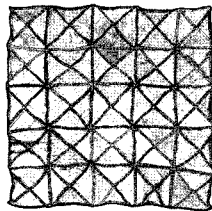
2) 응용형 구성

응용형 구성은 다른 크기 혹은 다른 형으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중심이 있는 사각형, 중심이 없는 사각형, 삼각형과 사각형의 혼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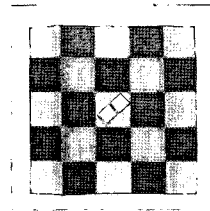
① 크기가 다른 사각형의 결합으로 중심이 있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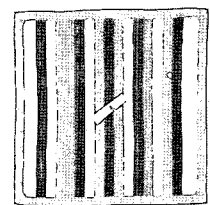
<그림 1>
緋緞세모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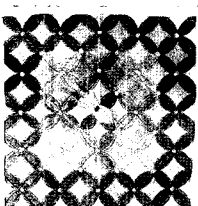
<그림 2>
紗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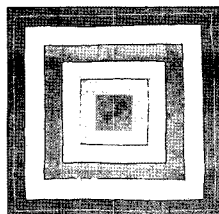
<그림 3>
三色方形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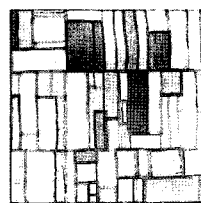
<그림 4>
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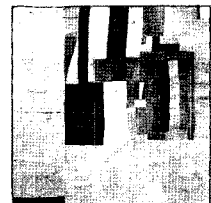
<그림 5>
如意珠紋褙



<그림 6>
洋緞조각靑보



<그림 7>
明絢조각옷보



<그림 8>
明絢조각옷보

진적으로 확대되어 보이는데 41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형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느낄 수 있고 대칭적 균형을 이룬다. 사각형들을 연상시키는 색상의 배열은 형태에 의한 리듬감을 나타낸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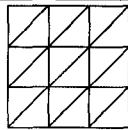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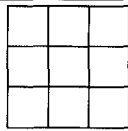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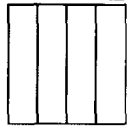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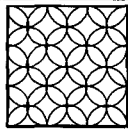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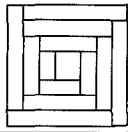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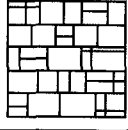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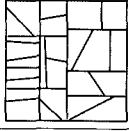
② 크고 작은 사각형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6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복잡한 면구성이지만 수직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7).

③ 크기를 달리하는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형으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20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정적인 수직·수평선과 동적인 사선으로 구성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한다(그림 8).

2. 색상조화

조형의 아름다움은 형태, 색채, 재질이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보는 즉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색채의 효과이다(윤일주, 1978). 여러 조각의 색상들로 구성된 조각보는 세련된 색상조화에서 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색은 가시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동양에서 색채는 단순히 색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철학사상과 결합한다(김영숙, 1988). 조각보는 의복을 제작하고 남은 천을 활용했기 때문에 당시 의복에 사용된 색상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상용보로 쓰였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표 1> 면구성 분석

유형	기본 단위 형태	특징	갯수	면구성 유형
기본형	삼각형	같은 크기의 삼각형이 두 개 혹은 네 개가 모여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반복이다.	8	
	정사각형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의 반복이다.	20	
	직사각형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의 반복이다.	8	
	원형	같은 크기의 원형의 반복이다.	5	
응용형	사각형	크기가 다른 사각형의 조합으로 중심이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보인다.	41	
	사각형	크기가 다른 사각형의 조합으로 중심이 없다.	6	
	삼각형 사각형	크기와 모양이 다른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중심이 없다.	20	

연구에서는 조각보에 나타난 다양한 색상조화를 크게 대비조화와 유사조화로 나누어 분석함에 있어서, 당시 색상이 갖고 있던 의미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표 2>로 제시하였다.

1) 대비조화

채색과 화가들은 전통적으로 색의 조화를 유사조화와 대비조화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대비조화는 뚜렷한 표현력을 가진 색채로서 거의 반대되는 색끼리 조화시키는 것으로(데이비스, 1990/1990), 본 연구에서는 원색조화와 보색조화를 포함하였다.

①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정색(正色)과 정색의 배합으로 만들어진 녹색(綠), 벽(碧), 홍(紅), 자(紫), 류(駟)의 간색(間色)이 원색조화를 이루며 47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당시 철학사상인 음양오행 사상은 우주의 모든 개념을 다섯으로 규정지어 색채에 있어서도 청, 적, 황, 백, 흑의 오색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서로 작용하여 만물이 화육(化育)하는 작용과 쇠망하게 되는 작용을 낳는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영숙, 1988). 따라서 조각보에 오색이 사용된 점은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뚜렷한 색상대비인 원색조화는 강렬하면서도 밝고 명쾌한 현대적 감각을 표현한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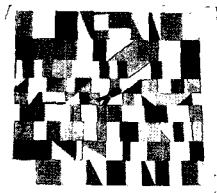
② 청홍(靑紅)색상이 보색조화를 이루며 14점의 조

각보에서 나타나는데, 사주보, 기러기보, 혼인때 사용하는 이불보 등 혼례용 조각보에서 많이 보인다. 당시 전반적인 문화활동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고 있던 무교는 색이 갖는 관련성 또는 연상작용에 의해 색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했는데 적색은 주로 잡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했고, 청색은 천공과 물, 무성한 식물 등 생(生)을 상징했다(임동권, 1982). 따라서 조각보에 음귀를 쫓고 길상적인 기원을 담은 청홍색이 사용된 점은 무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홍색은 기본 오색에 속하는 청색과 홍색만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적(赤), 홍(紅), 주(朱), 황(黃)과, 청(靑), 녹색(綠), 자(紫), 남(藍) 등을 포함하고, 보색대비는 이 범위 안에서 반대되는 색상들의 조화이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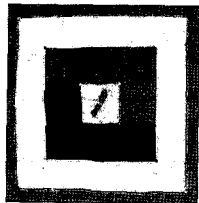
2) 유사조화

유사조화는 색채환에서 서로서로 근접한 색상끼리 조화시키는 것으로(데이비스, 1990/1990), 본 연구에서는 단일색상조화와 저채도의 파스텔색상조화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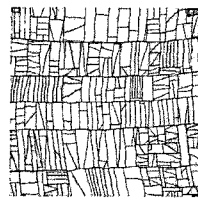
① 황(黃)색조, 흑(黑)색조, 적(赤)색조, 청(靑)색조가 단일색상조화를 이루며 23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단일색상조화는 명도나 채도에 변화를 준 동일색상들의 조화로서 특히 모시나 베 조각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황(黃)색조는 염색을 하지 않은 자연색 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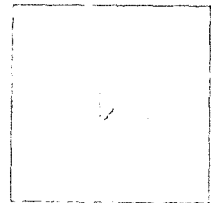
<그림 9> 명주조각보



<그림 10> 織紋紗조각보



<그림 11> 모시조각보



<그림 12> 紗조각보

<표 2> 색상조화 분석

유형	종류	특징	갯수	색명
대비조화	원색조화	뚜렷한 표현력을 가진 원색들의 조화이다.	47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녹색(綠), 벽(碧), 홍(紅), 자(紫), 류(駟)
	보색조화	색상환에서 반대되는 색상들의 조화이다.	14	적(赤), 홍(紅), 주(朱), 황(黃), 청(靑), 녹색(綠), 자(紫), 남(藍)
유사조화	단일색상조화	명도나 채도에 변화를 준 동일색상들의 조화이다.	23	황(黃)색조, 흑(黑)색조, 적(赤)색조, 청(靑)색조
	파스텔색상조화	저채도 색상들의 조화이다.	24	옥(玉)색, 연한 황(黃)색, 연한 회(灰)색, 연한 청(靑)색, 연보라, 연분홍

로를 사용한 것이고, 흑(黑)색조, 적(赤)색조, 청(靑)색조는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염색한 것인데, 조각은 색의 농담과 조직의 굵고 거침에 따라 서로 다른 명도를 나타낸다. 또한 싹술의 술기부분에서도 변화를 나타낸다(그림 11).

② 옥(玉)색, 연한 황(黃)색, 연한 회(灰)색, 연한 청(靑)색, 연보라, 연분홍 등 저채도의 색상들이 파스텔 색상조화를 이루며 24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파스텔색상조화는 은은하고 세련된 2, 3차 색이 다양하게 유사색대비의 사(紗)조각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사조각보의 지배적인 파스텔조의 색상은 매우 은은하며 색상의 뉘앙스를 잘 살림으로써 전체적으로 변화감과 긴장감을 잃지 않고 있다(김민자, 1990). 이처럼 저채도의 파스텔조 색상들은 오색(五色)의 의미를 지니면서, 강렬한 원색대비에서와는 다른 부드럽고 은은한 색상조화를 이루고 있다(그림 12).

3. 소재구성

조각보는 의복을 제작하고 남은 천을 활용했기 때문에 조각보의 소재는 의복의 소재와 일치한다. 한국복식에는 곱고 정교한 소재가 애호되었는가하면 거칠고 투박한 소재가 동시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소재의 사용은 당시대인들의 미적 취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금기숙, 1988). 조각보에 주로 사용된 소재는 사(紗), 라(羅), 단(緞), 명주(明紬) 등의 견직물과 모시, 베 등의 마직물인데 직물은 직물 고유의 속성과 함께 독특한 미적 표현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견직물로 이루어진 구성, 마직물로 이루어진 구성, 견직물과 마직물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표 3>으로 제시하였다.

1) 견직물 구성

견직물 구성은 사(紗)·라(羅)류의 얇은 견직물로 이루어진 구성과 명주(明紬)·단(緞)류의 두꺼운 견직

물로 이루어진 구성이 있다.

① 사(紗)·라(羅)류의 얇은 견직물로 이루어진 구성은 57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이 소재들은 모두 기계직으로, 은초사, 생고사, 갑사, 자미사, 숙고사, 진주사, 주향라, 당향라 등으로 곱고 정교하면서도 투명하다. 이런 재질로 이루어진 사(紗)·라(羅)류 조각보는 섬세하고, 가볍고, 은은하다(그림 13).

② 명주(明紬)·단(緞)류의 두꺼운 견직물로 이루어진 구성은 31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이 소재들은 명주, 양단, 모본단, 공단 등으로 곱고, 정교하면서도 광택이 있어 명주(明紬)·단(緞)류 조각보는 촉감이 부드럽고 유연하다(그림 14).

2) 마직물 구성

마직물 구성은 모시로 이루어진 구성과 베로 이루어진 구성이 있다.

① 모시로 이루어진 구성은 57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모시는 곱고 정교하면서도 투명하여 모시조각보는 섬세하고, 가볍고 뽀뽀하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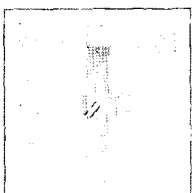
② 베로 이루어진 구성은 57점의 조각보에서 나타난다. 베는 거칠고 투박하다. 이와 같은 재질로 이루어진 베조각보는 생동감과 자연미를 표현한다(그림 16).

3) 견직물과 마직물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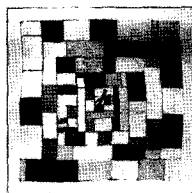
견직물과 마직물의 구성은 사와 모시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1점의 조각보에서만 나타난다. 사와 모시는 다른 직물이지만, 곱고 정교하면서도 투명하여, 모시·사조각보는 섬세하고, 가벼우면서도 서로 다른 직물에서 대비되는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한다(그림 17).

4. 제작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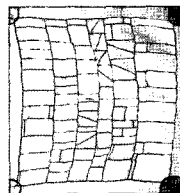
조각보를 제작할 때 필요한 바느질 방법은 흠질, 감침질, 시침질, 박음질, 상침질, 사뜨기 등으로 한복을 제작할 때와 동일하다. 그러나 조각보는 홀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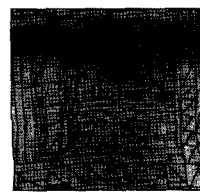
<그림 13>
紗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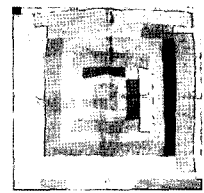
<그림 14>
비단조각보



<그림 15>
모시조각보



<그림 16>
베조각보



<그림 17>
모시紗조각보

<표 3> 소재구성 분석

유형	소재	특징	갯수	재질
견직물	사, 라류	얇은 견직물로만 이루어진 구성으로 섬세하고 가볍고, 은은하다.	57	곱고 정교한 재질로 투명하다.
	명주, 단류	두꺼운 견직물로만 이루어진 구성으로 부드럽고 유연하다	31	곱고 정교한 재질로 광택이 있다.
마직물	모시	모시로만 이루어진 구성으로 섬세하고 가볍고, 뻣뻣하다.	17	곱고 정교한 재질로 투명하다.
	베	베로만 이루어진 구성으로 생동감과 자연미를 표현한다.	2	거칠고 투박한 재질
견직물과 마직물	사, 모시	사, 모시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섬세하고 가볍고, 은은하면서도 서로 다른 직물에서 대비되는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한다.	1	곱고 정교한 재질로 투명하다.

겹보에 따라 그 제작기법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홀보와 겹보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표 4>로 제시하였다.

1) 홀보

홀보는 안감이 없는 보자기로, 얇은 사, 라 따위의 견직물이나 모시로 된 조각보는 대부분 홀보로 여름에 사용되었다(허동화, 1997). 홀보는 조각천을 이을 때 시접부분의 울이 풀리지 않도록 이중으로 홉질을 했다. 두 번째 한 홉질은 겹에서 보이는데, 천과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바느질 맘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홀보 바느질의 특징이다(그림 18). 홀보에서 조각을 이을 때 씌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 바느질은 감침질인데, 감침질은 가장자리 시접처리에도 사용되었다. 장식을 겸한 바느질로서 조각보의 끈 장식에 많이 사용한 것은 사뜨기로 천과 보색이 되는 실을 사용하거나,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바느질이 나타나도록 배색하였다. 홀보의 바느질이 조각보 전체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에서 바느질이 조각보 제작에 있어서 천 조각을 잇는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보자기를 장식하는 요소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9).

2) 겹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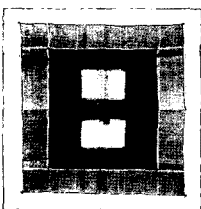
겹보는 안감이 있는 두 겹으로 된 보자기를 말한다. 비교적 두터운 단 종류와 명주같은 견직물은 겹보로

꾸며져 겨울철에 주로 사용되었다(허동화, 1997). 겹보는 시접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접을 양쪽으로 꺾고, 천의 겹에서 감침질하는데, 이때 눈에 띄는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감침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겹보 바느질의 특징이다(그림 20). 부분적으로 여러 천을 겹쳐 사용할 때는 박음질이 많이 사용되었고, 천을 두 겹 이상 겹쳐놓고 바느질할 때는 천이 밀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서 시침질이 사용되었다. 또한, 가장자리와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상침질과 사뜨기가 사용되었다. 겹보의 바느질은 조각보 전체에 바느질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눈에 띄는 색실을 사용하여 감침 흔적을 나타나게 한 것에서 바느질이 보자기를 장식하는 요소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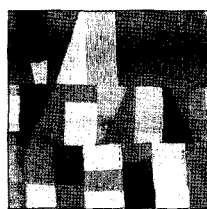
IV. 작품제작

1. 제작의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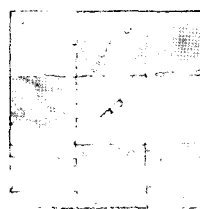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조각보의 조형적 특성을 기하학적 면구성, 색상조화, 소재구성, 제작기법에 두고, 이러한 특성을 디자인에 응용하여 현대복식을 제작하였다. 작품제작을 통해 의도한 것은 현대복식디자인에 있어서 전통을 활용하는 것이 세계화된 현대복식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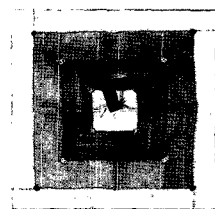
<그림 18>
長方形紗 조각보



<그림 19>
五色沕羅 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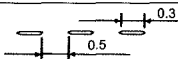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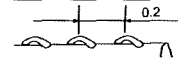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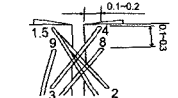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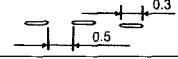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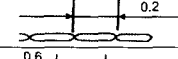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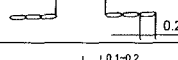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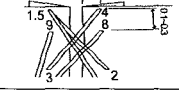


<그림 20>
네모꼴조각보



<그림 21>
紗 조각보

<표 4> 제작기법 분석

유형	바느질			특징	갓수	소재
	종류	용도	방법			
흡보	흡질	조각을 이을 때 솔기를 쌀 때		안감이 없으므로 시점을 이중으로 흡질하는데, 두번째는 천색상과 다른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바느질 짚을 선명하게 나타내어 보자기를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47	사, 라류, 모시, 베
	감침질	조각을 이을 때 가장자리 시접처리				
	사뜨기	끈을 장식할 때				
겹보	흡질	조각을 이을 때		두 겹으로 시접부분을 양쪽으로 나누고 겹에서 감침질하는데, 눈에 띄는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감침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겹보 바느질의 특징이다.	61	사류, 명주, 단류
	시침질	전체적인 구성할 때				
	박음질	부분적으로만 여러 천을 겹쳐 사용할 때				
	상침질	가장자리와 장식을 돋보이게 할 때				
	사뜨기	끈을 장식할 때				

작품에 도입한 면구성과 색상조화는 기본형과 대비조화, 응용형과 유사조화로 재구성하였다. 작품에 사용한 소재는 조각보의 주된 소재였던 실크, 모시 등을 사용하였는데, 소재들은 그 종류보다도 소재를 다른 표현방법에 의해서 서로 다른 표현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금기숙,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소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염색, 바느질 등 전통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프레스 플라워(press flower), 코팅(coating), 오버록 바느질 등 현대적인 기법을 시도하였다.

2. 작품구성

작품은 면구성, 색상조화, 소재구성, 제작기법이 다른 원피스, 원피스와 재킷,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표 5>로 제시하였다.

1) 작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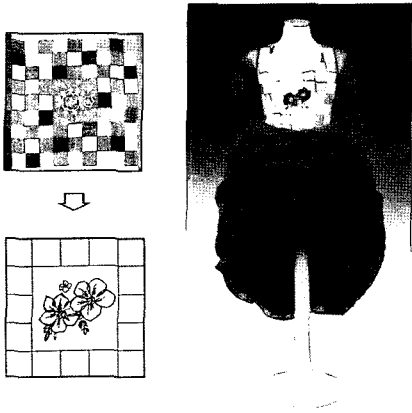
작품에 도입한 면구성은 조각보에서 보여지는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의 규칙적인 반복인 기본형이다. 색상은 청(靑), 적(赤), 황(黃) 색상만을 선택 사용하여 원색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성하였다. 이때 사각형의 면구성과 색상은 바둑판 문양이 되도록 배치했는데, 문양은

의복의 표면을 명료하게 부각시켜 강한 시각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양의 상태나 의상에서 문양이 배치되는 공간은 상황에 따라 관찰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Delong, 1987). 기본형 면구성과 원색조화, 투명한 실크노방 소재, 프레스 플라워(press flower)기법은 꽃의 형태를 입체화한 스커트, 소매와는 시각적으로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원피스로 제작되어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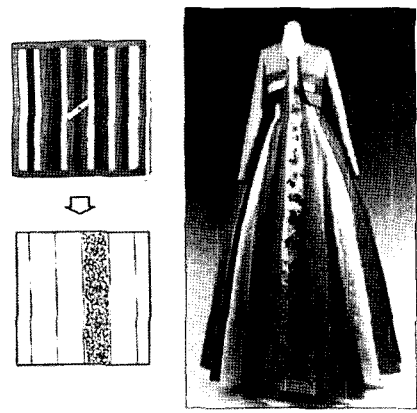
2) 작품 II

작품에 도입한 면구성은 조각보에 보여지는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의 규칙적인 반복인 기본형이다. 색상은 황(黃), 백(白), 회(灰)색, 녹(綠)색상을 첨가하여 원색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성하였다. 이때 사각형의 면구성과 색상은 줄문양이 되도록 하였다. 소재는 곱고 정교하면서도 광택이 있는 공단을 사용하였는데, 중앙의 흰색 공단에는 여러 색상으로 채색한 프레스 플라워(press flower)를 붙여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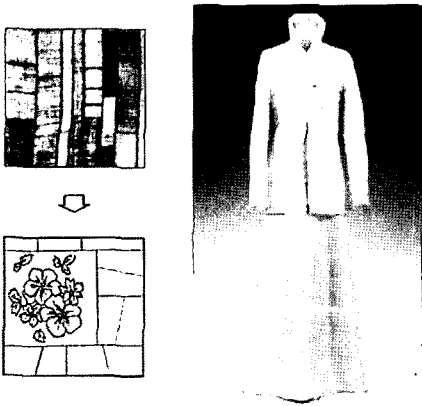
재킷은 크고 작은 사각형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점이 없는 것이 특징인 응용형의 면구성, 색상조화는 원피스와 동일하다. 기본형 면구성과 원색조화, 부드러운 공단 소재, 흰색 공단에 여러 색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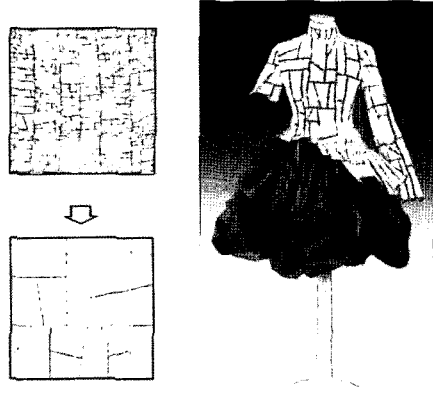
<그림 22> 작품 I



<그림 23> 작품 II



<그림 24> 작품 III



<그림 25> 작품 IV

채색한 프레스 플라워기법은 원피스로 제작되어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23).

스 플라워기법은 재킷으로 제작되어 차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24).

3) 작품 III

작품에 도입한 면구성은 크기가 다른 사각형의 조합으로 중심이 없는 응용형이다. 색상은 천연염색기법인 감염색으로 농담을 달리한 황(黃)색상이 단일색상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성하였다. 소재는 곱고 정교하면서도 투명한 모시를 사용하였다. 조각을 이을 때 사용한 바느질은 안감을 대지 않은 재킷에 독특한 표현효과를 나타냈다. 조각보 모서리의 전통자수는 프레스 플라워(press flower), 코팅(coating)의 새로운 기법으로 현대화하였다. 원피스는 재킷의 조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색상은 재킷에 사용된 중간색상을 사용하였다. 응용형 면구성과 단일색상조화, 가볍고 투명한 모시 소재, 바느질과 프레스

4) 작품 IV

작품에 도입한 면구성은 크기와 모양이 다른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중심이 없는 응용형 면구성이다. 색상은 천연염색기법인 감염색으로 농담을 달리한 황(黃)색상이 단일색상조화를 이루도록 재구성하였다. 소재는 거칠고 투박한 베를 사용하였다. 조각을 이을 때 겉에서 오버룩으로 바느질하였는데, 짙은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바느질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였다. 스커트는 블라우스와 조화되도록 입체감있게 디자인하고, 색상은 오버룩에 사용된 실과 같은 색상을 사용하였다. 응용형 면구성과 단일색상조화, 거친 베 소재와 오버룩 바느질 기법은 좌우 비대칭의 블라우스로 제작되어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25).

<표 5> 작품 분석

작품	구성	면구성		색상조화		소재구성		제작기법	
		유형	특징	유형	특징	유형	특징	유형	특징
I	원피스	기본형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의 반복, 바둑판 문양	대비 조화	청(靑), 적(赤), 황(黃)의 원색조화	견직물	곱고 정교한 재질의투명한 실크노방	겹	프레스 플라워 (press flower), 코팅 (coating)
II	원피스 재킷	기본형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의 반복, 줄문양	대비 조화	청(靑), 적(赤), 홍(紅), 황(黃), 백(白), 회(灰)색, 녹(綠)의 원색조화	견직물	곱고 정교한 재질의 광택 있는 공단	겹	프레스 플라워 (press flower), 코팅 (coating)
III	원피스 재킷	응용형	크기가 다른 사각형의 조합으로 중심없음	유사 조화	감염색으로 농담을 달리한 황(黃)색조의 단일색상 조화	마직물	곱고 정교한 재질의투명한 모시	홀	투명사 사용한 이중바느질, 프레스 플라워 (press flower), 코팅 (coating)
IV	블라우스 스커트	응용형	크기와 모양이 다른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중심없음	유사 조화	감염색으로 농담을 달리한 황(黃)색조의 단일색상 조화	마직물	거칠고투박한 재질의 베	홀	겉에서 짙은 색상의 실을 사용한 오버룩 바느질

V. 결 론

오늘날 지역적인 패션이 세계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패션업계와 학계에서는 고유의 전통성과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성을 조화시키고자 현대복식에 전통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의 자각과 세계화된 사회에서 모방의 한계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복식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대복식에 전통적 요소를 반영해야 할 필연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의 소재로 조선 후기 조각보를 선택하여 조각보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복식디자인 요소로 개발하여, 여성복 4벌을 제작하였다.

조각보 108점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각보에 나타난 면구성은 같은 크기의 삼각형, 사각형, 원형의 반복인 기본형 구성이 41점, 다양한 크기와 다른 형의 반복인 응용형 구성이 67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각보에 사용된 색상조화는 원색조화와 보색조화의 대비조화가 61점, 단일색상조화와 파스텔색상조화의 유사조화가 47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각보에 사용된 소재는 사·라류와 단·명주류의 견직물 구성이 88점, 모시와 베의 마직물 구성이 19점, 사·모시의 견직물과 마직물 구성이 1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각보제작에 사용된 바느질은 조각을 잇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장식하는 요소로 사용되었고, 홀보는 47점, 겹보는 61점으로 나타났다.

작품제작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형 면구성, 원색의 대비조화, 실크노방과 공단의 견직물, 프레스 플라워·코팅(coating)기법으로 화려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원피스를 제작할 수 있었다.

둘째, 응용형 면구성과 감염색으로 농담을 달리한 황색조의 유사조화, 모시와 베의 마직물, 프레스 플라워·코팅(coating)과 오버룩 바느질기법으로 차분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상의를 제작할 수 있었다. 셋째, 조각을 이을 때 사용한 바느질과 오버룩 바느질기법은 독특한 표현효과를 갖는 소재의 표현방법이 되었다. 넷째, 조각보에 나타난 전통자수를 현대화한 프레스 플라워(press flower), 코팅(coating)기법은 소재의 시각적 효과를 확대시키는 표현방법이 되었다. 다섯째, 조선시대 조각보는 현대복식디자인에 전통성과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었다.

따라서 현대복식디자인에 있어서 전통의 활용은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전통에 대한 다각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와 현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 (1983). *한국전통보자기*. 서울: 삼하출판사.
 금기숙. (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금기숙. (1999).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43, 69-81.
- 김민자. (1990). 한국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110*, 21, 25.
- 김민자. (1990).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희. (1979). *조선조 후기 조각보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숙. (1988).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찬주, 장인우. (1999).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 48, 5-24.
- 김현호. (1984). *조선후기 보에 나타난 색채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테이비스, 마리안.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옮김 (1990). 서울: 경춘사.
-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1981).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옮김 (1988). 서울: 까치.
- 윤일주. (1978). *색채학 입문*. 서울: 미진사.
- 이경자, 홍나영. (1996). *이화사진일기-한국의 옛 보자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동권. (1982). *한국민속학론*. 서울: 집문당.
- 진숙미. (1984). *조선조 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세완. (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글학회. (1957). *큰사전 3권*. 서울: 을유문화사.
- 한상수. (1974). *이조의 자수*. 서울: 수립원.
- 허동화. (1986). *한국의 전통 보자기*.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허동화. (1988). *옛 보자기*.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 허동화. (1997).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규방문화*. 서울: 현암사.
- Delong, M. R. (1987). *The way we look*.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